

# 도보여행자의 심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도보길 환경과 정보시설물의 설치 현황

- 제주올레 16코스과 사라봉·별도봉 산책로, 강릉바우길 8구간과  
경포호 산책로를 대상으로 -

## Installation Status of Information Facilities and Condition of Walking Road Influencing to Psychological Safety of Walking Tourists

- Focusing on the Course No. 16 of Jeju Olle Trail, Sarabong-Byeoldobong Walkway in Jeju  
and the Course No. 8 of Bougil, Gyeongpo Lake Walkway in Gangneung -

변경화\* 김영덕\*\*  
Byun, Kyeonghwa Kim, Young-du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stallation status of information facilities and condition of walking road influencing to psychological safety of walking tourists. For this purpose, four roads for walking tour are selected; the course no. 16 of *Jeju Olle Trail*, *Sarabong-Byeoldobong* walkway in Jeju and the course no. 8 of *Bougil, Gyeongpo Lake* walkway in Gangneung. Facilities installed on roads for walking tour are classified into four facilities; safety facility, information facility, amenity facility, local cultural facility. In order to consider installation status of information facilities and condition of walking road influencing to psychological safety of walking tourist, a field experiment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course no. 16 of *Jeju Olle Trail*. Thirteen cases were happened as confusing situation while walking tour. Of the 13 cases, the situation of being lost and wandering on the trail accounted for six cases. In contrast to the expectation that the situation of being lost and wandering would occur only at a crossroads, it is not that such situation took place at specific places like a crossroads or where direction signs were inaccurate. Walking tourists of this field experiment also confronted situations of having lost confidence about continuing the ongoing direction, of having anxiety over walking a walking trail, of feeling discomfort caused by walking and of being offended by uncomfortable or messy areas of walking trail. These confusing situations are happened inappropriate installation of direction sign, so direction sign is needed to install more carefully and detailed.

Keywords : Road for walking tour, Psychological safety, Information facility, Course no.16 of *Jeju Olle Trail*

주요어 : 도보여행길, 심리적 안전, 정보시설물, 제주올레 16코스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광산업이 과거 감상위주의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관광객들도 감상이라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관광을 소비하는 주체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도 관광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도보길 개발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코리아둘레길의 개발

에 관심을 갖고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는 제주의 올레길을 비롯하여 둘레길, 성곽길, 해파랑길, 순례길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도보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보여행길은 그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연계되어 다양하고 흥미로운 관광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제주 올레길을 도보여행하던 40대 여성의 피살 사건은 전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휴식과 힐링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관광지의 안전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을 지역사회와 관련기관 및 관광업계에 남겼다.

도보여행길은 개방된 외부공간에 형성되어 경계가 일정하게 형성되기 어려운 선(線)형으로 개발되므로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보여행길의 선(線)적 형태는 여행자들이 특정한 목표지점을 향하게 되면서 방향표시와 같은 정보시설물에 의지하게

\* 정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kimyd@cku.ac.kr)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6R1C1B2014338)

된다. 따라서 도보여행길에 설치된 정보시설물은 도보여행자들에게 도보여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안전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이윤정 외 2인의 연구<sup>1)</sup>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보여행길에 있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도보를 위한 물리적 보행환경, 여행을 위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두 가지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편의시설 및 안내표지물이라는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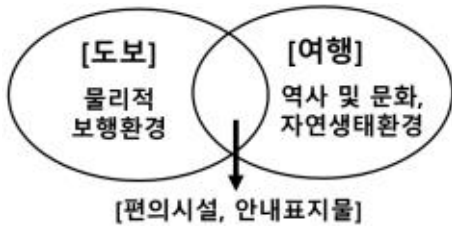


Figure 1. Conditions needed road for walking tour

즉 도보여행은 도보와 여행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이 포함되므로 보행의 안전과 여행이라는 유희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안내표지물은 도보여행의 방향, 정보, 안전, 즐거움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도보여행길에 설치된 정보시설물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보여행자의 심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도보길 환경과 정보시설물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올레길 16코스와 사라봉·별도봉 산책로 그리고 강릉바우길 8구간과 경포호 산책로를 선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 ① 설치된 시설물의 유형 및 현황
- ② 도보여행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본 연구에서 혼란상황이란 도보와 여행의 측면에서 물리적인 도보환경과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혼란을 의미한다. 즉 도보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신체적 불안이나 불편 등과 같은 안전적 측면, 불편함, 불안함, 거북스러움, 무서움, 공포 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도보여행길에 있어서 도보환경은 도심 내에서의 보행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거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행자들은 인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불안이나 보행의 불편함 등의 안전을 모두 심리적 안전의 범위로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 1.2 연구대상 및 방법

1) 이윤정 외 2인, 도보여행길의 현황 및 개선점 고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0, 2015.5. pp.202-211.

본 연구는 도보여행자의 심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보길 환경과 정보시설물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올레 16코스와 사라봉·별도봉 산책로 그리고 강릉바우길 8구간과 경포호 산책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roads for walking tour studied

연구대상 도보여행길	길이 (km)	유형 <sup>2)</sup>	특징
제주 올레길	16코스	15.7	선형 · 중산간지역~해안지역 을 거치면서 마을, 숲, 들 등의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됨
	사라봉·별도봉 산책로	4.16	그물형 · 올레 18코스의 일부 ·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두 개의 봉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사가 있으며, 주민들이 운동 및 산책로로 이용
강릉 바우길	8구간	9.4	선형 · 명칭 : 산 우에 바닷길 · 해변~등산로~정동진역에 이르는 바다, 산(폐방산, 339m), 마을, 해변로 구성됨
	경포호 산책로	4.5	원형 · 바우길 5구간의 일부 · 경포호를 둘러싼 산책로서 주변에 공원들과 연결되어 있고, 경사도가 없으며, 주민들의 운동 및 산책로로 이용

제주올레는 2007년 9월 제주올레 1코스가 개장된 후,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정규 코스와 중산간 및 제주의 작은 섬을 도는 알파 코스로 이루어져, 총 26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길이는 약 358.6km~407.8km정도이다.<sup>3)</sup>

강릉바우길은 2009년 개통하였으며, 강원도 및 강원도 사람들을 친근하게 일컫는 ‘감자바우’에서 명칭을 붙였으며, 모두 20개 구간, 360km로 이루어져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도보여행길 중, 사라봉·별도봉 산책로는 제주올레 18코스의 일부이며, 경포호 산책로는 강릉바우길 5구간의 일부이다. 제주올레 16코스와 강릉바우

2) 양지혜·김한일의 연구(국내 도보여행코스의 형태별 분류,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논문집, 2012. pp.219-220)에서는 국내 도보여행코스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선형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르고 경로 선택이 불가능한 형이며, 원형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고, 경로선택이 가능한 형, 그물형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코스 안에서 여행자가 경로 선택이 가능하며, 복합형은 이러한 유형들이 2개 이상 복합된 형태이다.



Appended-figure 1. Type of roads for walking tour

3) 제주올레 홈페이지(<http://www.jeuolle.org/>)

4) 강릉바우길 홈페이지(<http://www.baugil.org/>)

길 5구간은 도보여행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두 개의 산책로는 도보여행길이며 지역민들에게는 공원으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두 산책로의 이용자를 살펴보면, 사라봉·별도봉 산책로는 두 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하였으므로 경사가 있어, 걷기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성인,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경포호 산책로는 경사가 없고 평평한 지형이므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과 더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까지 포함되는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사전조사, 현장조사, 현장실험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4개의 도보여행길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 도보여행길의 이용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올레 16코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보여행객을 섭외하여 도보여행 중에 인적 및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2. Research method and contents

조사방법	조사 대상 및 내용
사전조사	· 도보여행길에 대한 선행연구 · 지역별 도보여행길 현황 · 사전답사-강릉마우길 3구간, 제주올레 5코스
1차 현장조사	· 4개의 연구대상 도보여행길 ·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2차 현장조사	· 보완조사 -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 인터뷰조사(주민, 외부방문객)
현장실험	· 대상지 : 제주올레 16코스 · 여행자 : 2인 한팀(여성) · 내용 : 도보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상황

## 2. 도보여행길의 현황 및 관련연구 고찰

### 2.1 도보여행길 현황

도보여행길은 세계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랑스와 스페인을 경유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의 시코쿠지역에 있는 오헨로라는 순례길도 천이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도보여행길의 조성은 2007년 제주올레길을 시작으로 하여 '걷기 열풍'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도보여행길 조성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그러나 '걷기 열풍'으로 인한 경쟁적인 도보여행길 조성은 예산중복과 정보미흡으로 인한 여행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조성주체<sup>6)</sup>에 따라 동일한 여행길에 대한 다른

명칭<sup>7)</sup>의 부여로 인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7월 전국 도보여행길 종합안내망(Korea Trails) 구축을 계획<sup>8)</sup>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걷기여행길'이라는 종합안내망<sup>9)</sup>을 구축하였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조성된 도보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형성을 발표하였다.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성된 도보여행길은 598개, 1,588코스로 나타났다.

### 2.2 관련연구

도보여행은 '느리게 걸으면서 하는 여행(박영아·현용호)<sup>10)</sup>',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여행(장용운)<sup>11)</sup>', '길을 따라 종교·문화·역사자원이거나 자연·생태 자원 등의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며 학습하기를 즐기는 걷는 여행(문화체육관광부)<sup>12)</sup>'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살펴보면, 도보여행은 '걷기'라는 도보활동과 '즐김'라는 체험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먼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과 같은 물리적인 보행환경과 여행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의 도시설계에 있어서는 1차 보행권을 500m, 2차 보행권을 1000m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최근의 걷기 열풍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사람들은 도시설계가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을 용의가 있음을 보여준다.<sup>1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보여행길에 있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보여행길과 관련한 연구들은 관광학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며, 도보여행자들의 여행 동기에 관련한 내용과 도보여행의 관광효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도보여행의 활성화 전략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 외의 분야에서는 도보여행길의 개발과 전략, 그리고 도보여행과 연계한 농촌마을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가생태탐방로'(환경부), '산림문화체험길'(산림청), '해안누리길'(해양수산부)의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7) 부산의 해파랑길과 갈매길, 울산의 해파랑길과 솔마루길, 고성 해파랑길과 산소길, 부여의 사비길과 백마강길, 군산의 구불길과 생태문화탐방로 등에는 일부 중복 구간이 있어서, 이용자 중심의 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8)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에 조성된 도보여행길, 체계적 관리 추진, 2013년7월10일자 보도자료  
9)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길, <http://www.koreatrails.or.kr>  
10) 박영아·현용호,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지, 제 33집 7호, 2009, p.79  
11) 장용운,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제 12집 1호, 2013, p.67  
12)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2010. p.11  
13) 김광중, 올레길 걷기 열풍이 도시설계적 함의,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2010. p.15

5) 이윤정 외 2인, 도보여행길의 현황 및 개선점 고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0호, 2015, pp.202-211  
6) 도보여행길 조성사업에는 '녹색경관길'(국토교통부), '우리마을 녹색길'(안전행정부), '문화생태탐방로'(문화체육관광부),

진행되면서 연구의 주제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보여행길이 외부환경에 노출된 선(線)형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과 접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보여행길의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3. 연구대상 도보여행길의 시설물 설치현황

#### 3.1 유형별 시설물 설치 현황

연구대상지인 4개의 도보여행길에 설치된 시설물을 조사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Status of facilities installed on roads for walking tour studied

시설물 유형	제주올레길		강릉바우길			
	16코스	사라봉·별도봉 산책로	8구간	경포호 산책로		
안전 시설 / 도보 [보행 환경]	데크 등 보행시설 설치	●	●	●		
	안전경계시설	●	●	●		
	조명시설	●	●	●		
	방범용 CCTV	●	●			
	재해재난용 CCTV			●		
	제주스마트안심존		●			
	구급함	●	●	●		
	간이 초소		●			
	긴급구조번호	●		●		
	위험 및 출입금지 경고문 야생동식물 위험경고문	●	●			
정보 시설	안내 판	지역(도보길) 전체	●	●	●	●
		현코스 전체	●	●	●	●
		현재 위치	●	●	●	●
	입판	방향 및 거리 표시	●	●	●	●
		입판		●	●	●
	방향 표지	부착판	●		●	
화살표 표시		●	●		●	
편의 시설	등산로 리본	●	●	●		
	QR코드 인식 제공판		●			
	파고라 및 벤치	●	●	●	●	
	조망데크	●	●	●	●	
	화장실	●	●	●	●	
	음수대		●		●	
	쓰레기통		●		●	
기념 시설 / [여행 환경]	공중전화	●	●			
	먼지털이 기계		●			
	조형물	●	●	●	●	
	기념석	●	●	●	●	
기타 시설	스토리텔링 소개판	●	●	●	●	
	지역문화와의 연계	●	●	●	●	
	체육시설		●	●	●	
기타 시설	자전거 거치대		●			
	스피커 등 방송안내시설		●		●	

본 연구에서는 이윤정 외 2인의 연구에서 제시한 도보

여행길에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① 안전시설

도보여행길의 안전시설물은 보행자체를 위한 데크설치 등과 같이 노면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휴식, 조명시설, CCTV, 방송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급시를 위한 구급함의 설치나 긴급구조번호가 안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보여행길은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위험경고나 위해한 동식물에 대한 경고문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단지 여행자의 보행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안심존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과 첨단통신기술인 비콘(블루투스 송신기)을 접목하여 범죄 발생 등과 같은 위급상황의 발생 시 스마트 폰 전원버튼만 연속으로 4~5회 누르면 112지령실 및 보호자에게 비콘설치 반경 50m 내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사례이다.



Figure 2. Installation of smart safety zone

#### ② 정보시설

도보여행길에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5가지 유형이 조사되었다. 여행자들의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안내판, 입판, 화살표를 이용한 방향표시, 등산로리본이 주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QR코드를 활용하여 도보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은 사라봉·별도봉 산책로에만 설치되어, 현재까지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Figure 3. Board of QR code

#### ③ 편의시설

도보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파고라 및 벤치와 같은 휴식시설, 조망데크,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제주올레길 16코스의 경우는 올레길의 도보여행자를 위해 화장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보여행길 주변의 공공시설 내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음수대나 쓰레기통은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에 배치되어 있다.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먼지털이 기계는 사라봉·별도봉 산책로에 설치되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기념시설

도보여행길을 개발할 때에는 지역이 가진 문화의 활용과 연계가 도보여행길의 전체적인 동선을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념시설은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인 4개의 도보여행길에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올레 16코스는 마을, 산, 바다를 연결하는 동선으로, 사라봉·별도봉 산책로는 두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동선으로, 강릉바우길 8구간은 해변, 산, 마을(정동진)을 동선으로, 경포호 산책로는 경포호수 둘레가 산책로의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보여행길이 외부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자연요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포호 산책로의 경우는 이용자가 개별/커플/소그룹, 가족/친구 등의 전 연령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산책로의 길이에 비해 많은 조형물과 기념석, 스토리텔링 소개판이 설치되어 있다.

#### ⑤ 기타시설

도보여행길은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발되었는데, 사랑봉·별도봉 산책로와 경포호 산책로는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강릉바우길 8구간의 체육시설은 페러클라이딩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3.2 도보길 시설물 설치현황

연구대상인 4개의 도보여행길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시설물이 설치된 도보여행길은 사라봉·별도봉 산책로이다. 이는 도보여행길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공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책로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게 되었다. 그리고 산책로의 구성이 두 개의 봉우리가 연결되고, 봉우리 정상, 봉우리의 둘레 등이 연결되는 그물형 방식으로 산책로 동선이 형성되면서 반개방적인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공원의 기능을 가진 경포호 산책로는 호수를 둘러싼 동선이 완전 개방형을 띠게 되면서 안전시설물에 있어서는 보행자체의 환경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릉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 중의 하나이므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기념시설물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원기능을 가진 산책로는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노면이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제주올레길 16코스과 강릉바우길 8구간은 기본적으로 도보여행과 트레킹 목적으로 선형으로 형성되어, 도보여행자들에게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시설이 주요하게 설치되어 있다. 제주올레길 16코스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정보시설물로는 화살표모양의 방향표시와 등산로리본이며, 강릉바우길 8구간은 방향 및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입관과 등산로리본이 이용되고 있다. 보행환경은 편리성보다는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로 노면을 처리하고 있다.

## 4. 도보여행길 현장실험 결과분석

### 4.1 현장실험의 개요

현장실험은 도보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한 이유와 대처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올레길 16코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16코스는 제주도 서쪽 애월읍 고내포구와 광령1리사무소까지 연결된 코스이다. 도보길은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이 연결되면서 마을길, 숲길, 제주오름, 해안도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보여행길은 도심 내에서의 보행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거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행자들은 인지하고 있으므로, 신체적인 불안이나 보행의 불편함 등의 안전을 모두 심리적 안전의 범위로 포함하여 혼란상황으로 정리하였다.

#### ① 도보여행자 특성

현장실험의 도보여행자는 30대 후반과 40대 중반여성 2인 한팀으로 구성된 제주도민으로 선정하였다. 30대 여성은 올레길 도보여행이 본 실험이 처음이며, 40대 여성은 제주올레길 5개 코스를 도보여행 한 경험이 있다. 이 팀은 올레길 코스를 함께하는 것은 이 실험이 처음이지만, 한라산 등반, 제주오름, 제주도 내의 다른 산책로 등을 함께한 경험이 있어,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

방향표시의 설치 위치와 시선방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행자들의 신장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본 실험의 여행자들의 신장은 158cm, 162cm에 해당하였다.

#### ② 현장실험 방법

현장실험 방법은 2인의 도보여행자가 녹음기를 부착하고 도보여행을 하고, 연구자는 그들의 뒤를 약 5~10m 거리를 유지하면서 쫓아가다가, 혼란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유를 듣고 현장사진을 찍는다. 연구자는 사전답사를 통하여 도보길의 진행방향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행자들이 길을 잃거나 헤매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연구자는 알려주지 않는다. 여행자들이 여행도중에 길을 잃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방향표시를 최종적으로 본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을 취하였다.<sup>14)</sup>

도보방향은 16코스의 역방향으로 선택하였다. 제주올레길은 순방향과 역방향 어느 방향에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표시(순방향은 파란색, 역방향은 주황색)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사전답사를 통하여 방향표시 등이 역방향에서 혼란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역방향으로 선정하였다. 혼란상황의 발생은 방향표시나 도로환경 등이 관련이 있으며, 이를 검토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므로 역방향의 선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장실험은 2016년 7월 3일 오전 11시에 광령1리사무소 앞에서 출발하여, 7월 3일 오후 6시 고내포구 우주물 앞에서 종료되었으며, 총 7시간이 소요되었다.

14) 제주올레길 도보여행 중,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주올레길 방향표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장소로 되돌아와서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③ 분석 및 검토방법

도보여행의 하루가 경과한 후, 녹음한 내용을 듣고 현장사진을 보면서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 사례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도보여행 중에는 혼란스럽다고 느껴졌던 상황이 하루가 경과한 후, 검토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사라졌다면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도보여행 중 혼란상황이라고 인지된 사례는 13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길을 잃고 되돌아오거나 헤매게 되는 상황이 가장 많은 6개 사례로 나타났다. 다음은 도보진행 방향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도보여행에 대한 불안감 발생, 도보에 불편함 발생, 그리고 이질적이거나 저지분한 도보환경에 대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4.2 도보여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상황

(1) 길을 잃고 되돌아오거나 헤매게 되는 상황

도보여행 중, 여행자가 “길을 잃었거나 헤매게 되었다”라고 인식한 경우가 6회 발생하였으며, 길을 잃거나 헤매었던 시간은 짧게는 3~5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① 갈림길에서 방향표시의 불명확

도보여행을 중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여행자들은 방향표시에 의지하게 되는데, 표시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길을 잃고 되돌아온 경우이다. 본 실험에서 <Figure 4>의 사례는 여행자들이 다른 방향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결국 되돌아오게 된 경우이다. 순방향에서는 갈림길 중의 한쪽에서 도보여행이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Figure 4. An unclear route sign at a crossroads

② 갈림길에서 방향표시 설치방향의 부적절

갈림길에서 방향표시의 설치방향이 부적절하여,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길을 잃기도 한다.

<Figure 5>의 사례는 도보여행자들이 우측 전신주에 표시된 방향표시를 보지 못하여, 가고자 하는 방향(Figure 5, 좌측사진의 화살표)으로 도보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도보여행자들이 걷고 있는 도로는 좌측도로(도로의 형태, 폭, 노면 등이 동일함)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신주에 있는 방향표시를 의식하여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좌측도로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로 상

황에서 전신주에 부착된 화살표가 도보진행 방향에서는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가고자 하는 도로로 도보여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길을 잃게 된 것이다.

전신주에 표시된 화살표를 살펴본 결과, 반대편에서는 눈으로 쉽게 식별되는 반면, 역방향에서 진행할 때에는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 즉 전신주에 표시된 화살표가 도보여행자의 도보진행에 따른 시선방향과 맞지 않은 지점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ure 5. A route sign on an inappropriate spot at a crossroads

③ 기후가 고려되지 않은 위치에 방향표시 설치

<Figure 6>의 사례는 본 현장실험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위치에 화살표가 설치된 경우이다. 장소는 16코스의 수산저수지 주변이다. 비가 내려 저수지의 수면과 노면의 높이가 동일해지면서 보행도로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알지 못하는 도보여행자는 방향표시를 찾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지역민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수면의 깊이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할 정도 <Figure 6의 우측 사진>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방문객은 갑자기 보행로가 사라져 버리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Figure 6. Problem with the site of a route sign

④ 방향표시 설치기준의 급격한 변화

제주올레길은 도보여행자가 출발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순방향은 파란색, 역방향은 주황색의 화살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파란색의 순방향과 주황색의 역방향의 대부분의 화살표는 동일한 지점에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Figure 7>의 경우는 이 두 개의 화살표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어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보여행자의 여행흐름에서 순방향의 화살표가 있는 전신주를 먼저 만나게 되었고, 불법광고로

가려진 윗부분의 주황색 표식이 자연스럽게 역방향 표시로 오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도보여행자는 좌측 전신주에 부착된 역방향 화살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길을 헤매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올레길 방향표시를 설치할 당시에 역방향의 도보진행 순서가 좀더 고려되었어야 하며, 도보길 조성 이후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Figure 7. Inconsistency in the installation of a route sign

### ⑤ 도보여행 관련 사인의 차폐

제주올레길에는 도보여행의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에 여행자들에게 도보여행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스탬프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스탬프 시설은 도보여행자의 위치와 거리를 알 수 있게 하면서, 올레길 도보여행의 기념을 위한 것이다. 도보여행자들은 최종적으로 이 시설물에서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올레길 걷기의 마지막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최종 도착지점의 스탬프 시설물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도보여행자들에게는 상징적인 시설물이라 볼 수 있다.

본 현장실험에서는 도보여행자들이 종점지역의 스탬프 시설물이 차량으로 가려져 있어서 약 10분 정도를 헤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Figure 8).

도보여행길은 경계가 명확히 정해진 관광지가 아니라 선(線)형으로 길게 늘어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마을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관광지를 개발할 때에는 지역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Figure 8. A stamp spot hidden behind a vehicle

### ⑥ 갈림길에서 방향표시의 부재

갈림길에서 여행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선택해야 한다. <Figure 9>의 경우, 갈림길이 나타나기 직전에 올레길 리본이 부착되어 있어 여행자가 올레길 16코스 상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인지되었다. 그러나 곧 나타난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도 올레길 리본이 부착되지 않아,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헤매게 된 사례이다.

본 현장실험의 여행자들은 양쪽 두 개의 길을 서로 각각 나누어 약 100m 정도 진행 한 후 올레길 리본을 발견하여, 도보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Figure 9. A route sign at a crossroads

### (2) 진행방향에 대한 확실성 감소상황

도보여행 과정에서 도로환경이 갑자기 변화하여, 방향표시를 재확인해야 하는 등, 도보진행 방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도로 폭의 변화(특히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의 이동)와 도로 노면 상태의 변화에서 주로 나타났다.

<Figure 10>의 좌측 상황은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갑자기 나무가 우거진 공간으로 진입해야 하므로 여행자들은 주변의 방향표시를 확인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방향표시인 올레리본은 도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식별되지 않고, 도보진행 후 약 50m 전방에 부착되어 있었다. 반면 <Figure 10> 우측의 경우는 도로의 변화지점에서 방향표시를 쉽게 발견하여, 도로의 폭이 더 좁은 길로 여행자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사례이다.



[방향 표시가 보이지 않음]

[방향표시가 식별됨]

Figure 10. A route sign according to change of road

### (3) 도보여행에 대한 불안감 발생상황

#### ① 지나친 적막함으로 인한 공포감

여행자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새로움에 대한 탐색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과 같은 심리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도보여행길은 외부의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인적이 드문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도보여행자들은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막하고 고요한 상황인 2개소에서 도보진행에 불안감이 나타났다(Figure 11).

이러한 불안감이 발생한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고 숲속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났다. 아무리 나무가 우거진 도보길이라도 바로 인근에 넓은 도로가 있는 경우나 바다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 ② 야생동물 및 가축에 의한 위해감

제주 올레길은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코스가 많이 개

발되었다. 농촌에는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도시와 달리 묶어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Figure 12>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들로 인하여 무서움이 발생하였다. 도보여행길의 코스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는 기르던 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1. Fear caused by the excessively still and quite surrounding  
Figure 12. Discomfort caused by animals

#### (4) 보행에 대한 불편함의 발생상황

##### ① 노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

도보여행길이 외부환경에 조성되면서 여행자들은 도로상황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일정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불편한 도로환경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Figure 13>의 상황은 편리하게 조성된 도로에서 갑작스레 불편한 도로로의 진행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인지되었던 사례이다. 본 실험에서는 특히 비가 온 후 도로의 노면상태가 보행에 불편함을 가중시켰던 사례이다. 따라서 도보길을 조성할 때에는 날씨의 영향에 따라 노면의 변화의 정도로 일정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Figure 13. The road uncomfortable for walking

##### ②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 우려감

<Figure 14>의 상황은 도로에 항상 물이 흘러 이끼가 형성되어, 미끄러움을 감지하여 불편함이 인지되었던 사례이다. 이는 주변 밭의 배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에 항상 물이 흘러나오게 된 상황이다.



Figure 14. The road uncomfortable for walking due to soaked in water

#### (5) 이질감과 지저분함에 대한 거부함 발생상황

도보여행자들은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

가 존재한다. <Figure 15>와 <Figure 16>의 경우는 마을 내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축물과 방치된 건축물에서 정돈되지 않고 지저분한 느낌이 남아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분위기나 지저분한 도보환경은 여행객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게 된다.



Figure 15. Disharmony



Figure 16. The messy and chaotic construction

#### 4.3 혼란상황의 특징 분석

도보여행 중 발생한 혼란상황인 13개의 사례에 대하여 「안전에서의 불안감」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느낌」의 정도를 [크다], [중간이다], [낮다]의 3단계로 구분하여 체크하고, 그 상황이 발생하였던 장소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먼저 도보여행 중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장 많이 나타난 사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경우로서 13개 중 6개 사례가 이에 해당하였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상황이 갈림길에서만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방향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시설물의 차폐 등 지역에서의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서의 불안감」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느낌」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경우는 인적이 드물고 지나치게 적막한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참가한 여행자는 “아, 이런데서 일이 발생하면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이 순식간에 밀려들었다고 할 정도로 불안감이 상승하였다.

도보여행 중 「안전에서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상황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상황에서도 숲속이나 저수지와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나타났다. 저수지는 실제적으로 개방적인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진장소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상황이 마을이나 시내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안전에서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안전에서의 불안감은 낮게 나타났으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느낌이 높게 나타난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이다. 첫째는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 중에서 방향표시를 여행자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의 도움으로 발견한 상황이다. 이는 도보여행길에서 여행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도보여행의 완성을 기념하는 종료 스탬프를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confusing situations which occurred in the field experiment

	발생결과	안전에 불안감	심리적으로 부정적	원인	위치 / 위치특성
Figure 4	갈림길 / 길을 잃고 되돌아옴	●	○	방향표시의 미흡	숲속 / 외진
Figure 5	갈림길 / 길을 잃고 되돌아옴	●	○	방향표시의 미흡	숲속 / 외진
Figure 6	길을 잃고 헤매게 됨	○	●	방향표시의 미흡	저수지 / 외진, 개방적
Figure 7	길을 잃고 되돌아옴	○	○	방향표시의 미흡	마을 / 개방적
Figure 8	길을 잃고 헤매게 됨	○	○	주민협조 미흡	시내 / 개방적
Figure 9	갈림길 / 길을 잃고 헤매게 됨	○	○	방향표시의 미흡	마을 / 외진
Figure 10	도보 진행방향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짐	○	○	방향표시의 미흡	마을 / 외진
Figure 11	도보여행에 대한 불안감 발생	●	●	지나치게 적막한 환경	산 / 폐쇄적
Figure 12	도보여행에 대한 불안감 발생	○	●	갑작스런 동물 출현	마을 / 외진
Figure 13	도보에 불편함	○	○	도로환경의 갑작스런 변화	산 / 외진
Figure 14	미끄러질 가능성으로 도보에 불편함	●	○	배수처리 및 도로 정비	들 / 외진, 개방적
Figure 15	이질감	○	●	지역에 동화되지 않은 이질적 문화	마을 / 개방적
Figure 16	지저분한 느낌	○	○	방치된 건축물	시내 / 개방적

\* 영향 정도 : ●(큼), ●(중간), ○(작음)

찍기 위해 헤매게 된 상황이다. 도보여행이 거의 7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종료지점에서 빨리 스탬프를 찍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여 헤매던 상황이 부정적으로 각인되었다. 세 번째는 도보여행길 주변에 형성된 이질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다.

본 현장실험은 2인의 도보여행자를 통해서 실시한 결과로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내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험자로 참여한 도보여행자가 여행 도중 발생하였던 혼란스러운 상황은 다른 도보여행자들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현장실험은 향후 도보여행길에 있어서 정보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보여행길의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주올레길 16코스와 사라봉·별도봉 산책로 그리고 강릉바우길 8구간과 경포호 산책로를 대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형 및 현황을 파악하고 도보여행 시 안전 및 심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도보여행길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윤정 외 2인의 연구를 토대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보여행길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도보를 위한 물리적 보행환경, 여행을 위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두 가지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으로 편의시설 및 안내표지물이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인 4개의 도보여행길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시설물이 설치된 도보여행길은 사라봉·별도봉 산책로로서, 이

는 도보여행길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공원기능을 가진 산책로로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두 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그물형태의 동선체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반면 공원의 기능을 가진 경포호 산책로는 호수를 둘러싼 동선이 완전 개방형을 띠게 되면서 보행자체의 환경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릉 지역에서 상징적인 공간이므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기념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제주올레길 16코스와 강릉바우길 8구간은 기본적으로 도보여행과 트레킹의 목적으로 형성되어, 보행환경은 편리성보다는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로 노면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도보여행자들에게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시설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올레길 16코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보시설물로는 화살표모양의 방향표시와 등산로리본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강릉바우길 8구간은 방향 및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입판과 등산로리본이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도보여행 중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현장실험 결과, 13개의 상황에서 「안전에서의 불안감」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느낌」의 사례가 도출되었다. 이 두 가지의 유형의 혼란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은 인적이 드물고 지나치게 적막하여 고요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경우로 나타났다.

혼란상황이 발생한 사례 수를 보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상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갈림길이나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숲속, 마을, 시내 등에서 방향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지역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도보여행 중 안전에서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난 상황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경우에서도 숲속이나 저수지와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나타났다.

안전에서의 불안감은 낮으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높은 경우는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여행자가 스스로 방향표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 최종지점에서 종료스탬프를 찍기 위해 헤매게 되는 상황, 도보여행길 주변에 형성된 이질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다.

도보여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보길 환경과 정보시설물로 구분하여 보면, 13개의 사례 중 6개의 사례가 방향표시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도보길 환경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도보여행길은 도심 내에서의 보행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거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행자들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보여행은 단순히 걷기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질감을 느끼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것이 도보여행길의 개발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보여행길은 관광지의 형성이 경계가 뚜렷한 일정한 범위에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서 선(線)형으로 개발되면서 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설정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시설물이 도보여행자들의 심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도보여행길이 외부의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보시설물들은 쉽게 노후화되고 태풍 등과 같은 자연조건에 의해 훼손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민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도보여행길이 길게 늘어진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한가지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길이 접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보길은 산, 들, 해변, 마을안길, 숲속 등과 같이 지리적 특성이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광중, 울레길 걷기 열풍이 도시설계적 함의,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2010. p.15
2.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2010. p.11
3. 박영아·현용호,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울레길'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지, 33집, 7호, 2009, p.79
4. 양지혜·김한일, 국내 도보여행 코스의 형태별 분류,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논문집, 2012. pp.219-220.

5. 이윤정 외 2인, 도보여행길의 현황 및 개선점 고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0호, 2015.5. pp.202-211.
6. 장용운,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서비스연구, 12집 1호, 2013, p.67
7.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에 조성된 도보여행길, 체계적 관리 추진, 2013년7월10일자 보도자료
8. 제주올레 홈페이지(<http://www.jeuolle.org>)
9. 강릉바우길 홈페이지(<http://www.baugil.org>)
10.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길, <http://www.koreatrails.or.kr>

접수일자 : 2016. 07. 10

심사완료일자 : 2016. 08. 22

게재확정일자 : 2016. 08. 23